

시편 37편 5절에도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원어로 ‘언덕에서 돌을 굴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돌을 굴릴 때 그 돌이 어디를 향해 굴러갈지 알 수 없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돌이 가는 방향을 알지 못하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순종은 좋은 결과나 더 큰 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순종한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언덕에서 돌을 굴린 것입니다.

맡기는 것의 전제는 나보다 훨씬 뛰어나셔서 나를 돌보시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언덕 아래로 돌을 굴릴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뛰어나신 주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주님 앞에 항복하며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항복할 때 은혜와 사랑이 있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모든 문제를 다 맡기십시오. 언덕에서 굴려 버리십시오. 그럴 때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 나라를 인도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 도

인도자

찬 송

292, 384, 413, 563장 (중 택1)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후 조상들이 남긴 믿음을 서로 이야기하며 그분들의 유덕을 기릴 수도 있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2026

S h e m a A g a i n

설날
감사예배

오 직 주 님

칠 번 을 하 루 같 이

명성교회



예배순서

* 가능하면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목	도	마가복음 12:29-31 (말씀을 인도자가 낭독)	다 같이
찬	송	287, 304, 405장 (중 택1)	다 같이
성	경	교독	다 같이

인도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회 중: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인도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회 중: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인도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회 중: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다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 멘-

기	도	가	족	중
---	---	---	---	---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설 명절에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힘써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가족이 마음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베드로전서 5:7-11	인도자
------	--------------	-----

- 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 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 9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 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 11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	씀	언덕에서 돌을 굴리다	인도자
---	---	-------------	-----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맡겨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혹은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의 선을 긋는 것이 옳은 신앙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된 종으로서 열심히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교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